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세계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ow to Promote World Island Festival through
Participation Community -

조 문 수*
(Cho, Moon-Soo)

목 차

- I. 서 론
- II. 세계 각국의 섬축제와 국내 세계문화축제 운영상황 분석
- III. '98세계섬문화축제 평가 및 2001세계섬문화축제 계획
- IV. 제주도 지역 사회단체 면담조사 결과
- V.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세계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 VI. 결 론

I. 서 론

세계 각국은 관광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과 이벤트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이벤트를 적절하게 관광 상품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Jamal & Getz, 1995; Murphy, 1983)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官)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지역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수용태세를 확립시키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근수, 2000)

Haywood(1988)가 제시한 시나리오(scenarios) 접근법은 관광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정확하게 하며, 개발의 전략, 전술이나 구체적인 계획, 행동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시나리오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Haywood, 1988) 지역주민의 참여가 일단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참여할지,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할지, 지역주민 중 누구를 참여시킬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을 Haywood는 6단계 참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부응하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98세계섬문화축제의 평가를 통하여 2001세계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지역주민 참여라는 차원에서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은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문화축제들의 운영 상황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방법은 섬문화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방법(descriptive analysis method)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역 사회단체의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법(interview survey)이다.

II. 세계 각국의 섬축제 및 국내 세계문화축제 분석

2.1 세계 각국의 섬축제 현황

2.1.1 미국 하와이섬의 알로하 페스티벌

매년 9월 중순이 되면 Aloha 정신이 깃든 '알로하 페스티벌'이 열리고 'Aloha Week'의 열기는 40여 일간 하와이언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

과 행복한 마음을 심어 준다. 알로하 축제는 폴리네시아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멸망한 하와이 왕조의 문화도 한눈에 볼 수 있어 흥미롭고, 관광객들이 동참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 특히 각기 다른 모습의 훌라 댄스 공연과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일품이다. 1795년 하와이의 여러 섬을 통일하여 하나의 왕조를 일으켰던 '카메하 메하 대왕'에서부터 마지막 여왕인 '릴리우오 칼라니'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왕조를 재현하는 행사이지만 그보다는 하와이의 자연과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알로하 정신'이다. 축제는 매년 폴리네시아 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왕과 여왕 그리고 왕자와 공주를 선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일년 동안 하와이 왕조를 대표해서 미국 본토에서 거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장 행렬에서 길가의 춤 공연, 로열볼에서 골프, 훌라 경연에서 로테오 경기, 콘서트에서 모래성 쌓기, 스틸커타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

2.1.2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축제

신비스런 섬나라, 뉴질랜드에서의 마오리족 축제는 밝고 즐거운 멜로디와 개성이 뚜렷한 무용과 음악에 특징이 있다. 마오리족 축제는 새로운 족장이 생기거나 부족 전체의 행운이 있을 때 주로 열린다. 남자들의 호전적인 하카춤과 여성들의 우아한 포이춤은 화카레와레와의 마오리 집회소에서나 로터루아의 큰 호텔 디너쇼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2.1.3 인도네시아 발리의 오달란축제

발리에는 약 2만여 개의 사원이 있는데 마을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절이 있다. 이 사원들마다 오달란이라고 하는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거행하고 있다. 즉, 전국 각지에서 거의 매일 '오달란 축제'가 거행되는 것이다. 여성들이 준비한 떡들과 남성들이 준비한 제단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여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오달란이 계속되는 동안 발리의 여인들은 최고의 전통적인 의상을 차려입고 제물들을 머리에 이고 사원에 가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구경하며 밤을 새운다.

2.1.4 파푸아뉴기니 트로브리안드 섬의 Yam 축제(Yam festival)

트로브리안인들의 문화는 파푸아뉴기니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다. 'yam'은 이 곳 사람들에게 있어 주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이며 권위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재배하는 yam의 품질과 크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오랜 토론을 거쳐 탁월한 yam 재배자로 선정되면 그 부족 사회에서 사회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yam 승배는 보통 수확기가 되는 7~8월에 절정에 다다른다. 그리고 yam이 수확된 뒤 부족마을로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사람들에게 전시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수확된 yam에 대한 평가와 찬미를 보내게 된다. 그런 후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들이 yam을 마을로 운반해 돌아간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는 다분히 종교적인 의식들과 결부되어 yam은 주식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표 2-1> 세계 각국의 섬축제

축제명	주최국(섬)	축제기간	행사종류	비고
알로하 페스티벌	미국(하와이)	매년 9월 중순 (40여 일간)	하와이 왕조의 왕가 선출, 가장 행렬, 로열볼, 홀라 경연, 로데오 경기, 스틸커타 콘서트	각 섬마다 특징 있는 축제와 퍼레이드 연출
마오리족 축제	뉴질랜드	새로운 족장 선출, 부족의 잔치	하카 춤, 포이 춤, 목공예	평상시에도 화카레와 레와의 마오리 집회소와 로터루아의 호텔에서 관람가능
발리의 축제 (오달란)	인도네시아	전국 각 사원에서 1년에 1회	또팡(탈춤극), 와양 풀릿(그림자 인형극), 가물란 연주, 바롱켓춤, 바리스 꼬데춤, 상향드다라춤	발리인들 신앙인 힌두교 제전의식에서 비롯된 축제종교의례 외에도 전통민속춤과 탈춤, 인형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yam 축제	파푸아뉴기니 (트로브리안드섬)	7, 8월 기간 중	yam 재배자 선출, yam 행렬	음식을 종교적이며 권위의 상징으로 표현
아사라 페라해라	스리랑카	아사라(스리랑카 음력으로 7, 8월) 기간 중	말리가와 코끼리 행렬, 푸자의식	부처님 치아사리를 받드는 축제

자료 : 연구자 자료 정리

2.1.5 스리랑카의 아사라 페라해라

스리랑카 제2의 휴양도시이며, 구릉지대에 위치한 캔디(Kandy) 시는 16세기초부터 이 곳 정글 속에서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곳에 살고 있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캔디 왕조는 영국에 식민 통치를 받던 1815년 영국인에 의해 밀립 속에서 발견된 마지막 왕조이다. 바로 이 곳에서는 매년 '아사라(Asara : 스리랑카 음력으로 7, 8월을 의미함) 페라해라(Perahara :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받드는 축제이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 축제는 종교 문화적 의식뿐 아니라 전통 예술가들과 범인종적인 차원의 축제이다. 이 행사를 통해 유일한 '깨달은 자' 즉, 부처님과 4신, 그리고 비의 신 Indra에게 빛나는 이 아름다운 섬을 잘 지켜 주도록 축복을 빌며, 또한 깨달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한 '기회의 장(場)'이기도 하다.

2.2 국내 세계문화축제 운영상황 분석

2.2.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1) 행사의 개요¹⁾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Kyongju World Culture EXPO 2000)의 주제는 새 천년의 숨결(부제 : 만남과 아우름)이다. 행사는 대한민국 경상북도(경주시)가 주최하였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2000. 9. 1~2000. 11. 26(87일간)까지 경주 보문단지 엑스포행사장 및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첫째, '지식과 문화가 국력의 중심이 될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한민족의 문화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 '나날수록 풍요가 더해 가는 문화의 창달로 대립과 충돌의 20세기를 화해와 평화의 21세기로 탈바꿈하려는 인류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민족문화를 주도해온 경상북도의 시대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유·무형의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국내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1)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내부자료 정리요약

행사의 방향은 첫째, 2000년의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98행사와 차별이 되도록 하기 위해 행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ASEM, New Millennium, 2002 월드컵개최 등 국내외 여건을 행사와 연계하여 주제 및 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특색 있는 행사들로 구성하였다. 둘째, 물리공간에서 정보공간으로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부응하여 가상현실(V.R) 등 첨단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2000년 행사의 특성을 전달할 메시지를 개발한다. 넷째, 행사장을 경주 시내로 확산하고 야간행사 발굴로 지역사회에 머무르면서 관광하는 체재형 관광을 개발한다. 다섯째, 유교 및 가야문화권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로 관람객의 관광권역을 광역화한다. 여섯째, 문화인프라 축적이 가능한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여 행사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전시장을 유료 관람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일곱째,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전시관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가 가장 적은 '기획전시실(90평)'을 비롯하여 가장 넓은 전시장 '동방문화관(1,243평)'을 포함하여 6곳이다. 그리고 각 전시관의 1일 적정 수용력은 2,100명~24,150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관람 소요시간은 대략 20분 내외로서 전시관별로 유사한 관람시간이 소요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엑스포 전시관별 현황

구 분	규 모	구 성	관람 소요시간	적정 수용력
문화이미지전 (새천년의 숨결관)	450평	4개 zone	20분	
동방문화관	1,243평	5개 zone 주동선 300m 부동선 100m	40~60분	24,150명 (최대 34,500명)
문화상품특별전	230평	4개 sector 동선 99m	20분	7,000명 (최대 10,000명)
해외자매지역관	150평	3개국 5개 단체 동선 60m	10분	6,237명 (최대 8,910명)
人과 人 특별전	300평	3개 19 zone 동선 200m	25분	9,100명 (최대 13,000명)
기획전시실	90평	전시 9회 동선 70m	20분	2,100명 (최대 3,000명)

2) 행사의 평가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9월 1일부터 11월 17일(특별기간 : 11월 18일~26일)까지 총 54개의 행사를 가지고 81개국 9,414명이 참가하여 관람객 총 175만명(내국인 : 1,616천명, 외국인 : 134천명)의 내방을 받은 성과 있는 행사로 막을 내렸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 2000). 또한 관람객 총 175만여명 중 외국인은 애당초 목표했던 10만명을 상회하는 13만 4천여명으로 국내에서 열린 행사 가운데 대전엑스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은 행사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엑스포행사는 '집안잔치'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안팎의 지적을 불식시키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지역의 축제를 세계적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판단된다.(이충기, 2001)

무엇보다도 문화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가상현실(VR)기법의 주제영상은 새로운 시도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문화이미지전과 人과 人 특별전, 동방문화관 등은 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축제퍼레이드 오페라공연, 「우루왕」 공연 등 시가지 행사는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설문조사결과 공간의 쾌적성이나 시설간 연계성, 편의시설, 행사장 운영 및 진행 등은 지난 '98년 1회 행사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태양·이충기, 2000) 이번 엑스포 행사는 내용의 질적 수준 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축적을 통한 상시활용 체제 구축,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문화의 세기를 맞아 시도했던 문화와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을 거둠으로써 국내 문화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엑스포 행사를 위해 개발된 사이버 캐릭터 '디지콩', '아나콩'을 이용한 문화상품과 삼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천년의 신화'는 외국으로의 수출도 추진될 만큼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금년 엑스포의 마스코트인 '화랑'과 '원화'를 소재로 한 인형, 가방, 열쇠고리 등 각종 캐릭터 상품은 이번 엑스포를 '문화상품의 요람'으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게 한 주인공들이었다.

이번 엑스포는 무엇보다 문화인프라 축적의 개념을 도입해 상시개장이 가능한 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1회성 행사와는 차별성을 가진

다. 주제영상관과 컴퓨터게임관, 사이버캐릭터관 외에도 주제전시가 열린 동방문화관, 문화이미지전, 人과人 특별전, 천축국대탐험 등은 문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으로 상시 개장을 할 경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축적된 문화인프라를 금전으로 환산하자면 총 130억원 가량의 문화적인 자산으로 평가된다.

3) 행사의 경제적 효과

10월 중순경 경주 보문단지의 관광호텔과 콘도는 연일 만원(滿員)으로 전년 대비 약 100%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 행사기간 중 엑스포행사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2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약 3,18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777억원의 소득유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동국대, 1999) 또한 이번 행사로 인하여 경북도내 유명 관광지를 연계한 광역관광권 형성에 성공하였으며, 안동, 고령, 봉화, 동해안 등의 축제와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이번 엑스포 행사의 전체 관람객은 175만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34,000명이다.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결과로 무엇보다도 외국인 관람객 유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행사에 330억원을 투자해 141억원의 수익과 136억원의 고정자산을 축적하였는데, 2000년 상반기 중에 계획대로 전시관을 상시로 운영할 경우의 수익금까지 감안할 경우 2년 후 차기행사시까지 예상되는 수익금은 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행사기간 중 상시개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은 사이버영상관, 컴퓨터게임관, 사이버캐릭터관, 문화 이미지전, 동방문화관, 人과人 특별전 등이며, 백결공연장을 상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참신한 여러 가지 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사내용과 운영의 수준을 좀더 높이기 위한 방안과 경주시내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투자가 요구된다.

2.2.2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1) 행사의 개요와 평가

50일간 속초 청초호변에서 개최되었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원활한 교통소통, 따뜻한 손님맞이, 풍족한 엑스포

내용 등으로 역대 지방이벤트 중 성공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 5만 여명을 포함한 2백26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이번 행사는 18개의 다양한 전시관, 63종의 공연행사,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다. 이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관광진흥'이란 명백한 목적과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테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준비작업'으로 가능하였다.

엑스포를 계획하는 문제설정 단계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예, 여성단체, 속초경찰련, 웰컴투강원 캠페인 추진협의회, 99강원엑스포 속초시민후원회, 강원도출신 인기 연예인모임(강사모),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종교계, 속초YMCA, 관광숙박업 대표와 종사자들, 지역대학 등이) 주도적으로 엑스포 범조성과 홍보에 나섰기 때문에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박근수, 2000) 또한 관광마인드를 공통으로 인식한 전 강원도민의 의욕과 헌신적인 노력이 성공의 밑거름이었다. 특히, 자가용운행을 자제하고, 가로변 화단에 물을 주며, 보도블럭 하나, 나부끼는 행사깃발 하나에도 정성을 쏟은 속초시민들의 관심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속초시는 엑스포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4년 동안 지역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우선, 대회장인 청초호유원지 123,000평 부지 기반조성을 위한 호안공사, 매립공사, 연약지반처리, 상하수도 공사, 도로교량공사, 통신 전기관로공사 등을 공사기일 내 건설하였다. 또한, 행사장소인 청초호의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정을 당초보다 앞당겨 지난 1999년 7월부터 임시가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 3만본을 청초천에 식재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질정화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엑스포 성공의 최대 관건이었던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엑스포장의 접근도로망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시설과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또한 예상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대회장 주차시설(4천56대)과 유희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시설(3천9백60대)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책을 강구했고, 도심의 전체적인 교통여건을 분석 연구해 교통체증 취약지 5개 구역 13개소를 대상으로 지·정체 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량 분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회장 경유 시내버스 회수를 증편하여 운행하는 등 대회장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했으며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택시,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을 바꾸었다. 특히, 대회기간 중에는 자가용 운행 안

하기 운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교통소통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일환으로 전 시민의 능동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엑스포의 붐 조성을 위해 순수민간조직인 시민후원회가 조직 운영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업무기능별로 지원 협조할 유관기관단체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시민설명회, 시민실천 다짐대회, 계층별 엑스포장 견학, 시민의식개혁 교육, 성공기원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시민동참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D-1년 기념행사, D-300, 200, 100, 50, 30일 기념행사 등 특별 이벤트를 시기별로 다양하게 추진해 엑스포 성공을 위한 사전 붐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는 전국무용제, 태권도 대회, 윈드썰빙, 씨름왕선발, 민속경연 등을 장의 행사로 유치하여, 개최함으로써 유사 이래 속초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총 32가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엑스포 개최의 의의와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적인 관광지 설악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고물 설치와 홍보매체 활용, 관광업체 홍보참여, 관광홍보, 마케팅강화, 엑스포관람하기 운동 전개, 국내외 각종 축제와 이벤트행사 현장홍보, 국내외 자매교류 도시를 통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특히, 대도시 현장 홍보활동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의회의원, 관광업체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완벽한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손님맞이 시민들의 친절시민 의식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제관광지다운 도시환경 정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솔선 수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질서의식개혁교육, 교통자원봉사자대 운영, 관광점객업소 손님맞이 운동, 개방화장실 확대와 화장실 청결운동, 시민 대청결 운동 등 손님맞이 '질서·친절·청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강원포럼이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엑스포가 지역발전에 도움된다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지역개발의 기회제공, 도로정비 효과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주제관과 상징탑 등 도심관광명소가 확보돼 자연관광과 균형을 이루며 종합관광여건을 갖추게 된 점 또한 큰 성과 중

의 하나다. 이와 함께 엑스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금유입효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잠정추계이지만 이번 엑스포의 도내 생산유발효과가 약 2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 행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국제관 운영과정에서 각국 특산품 쇼핑의 묘미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부스마다 정식수입 통관된 5종이내의 품목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으나 일부 부스에서 판매 위주로 과열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무형의 성과를 거둔 반면, 아쉬운 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점이 나타났다. 해외 관광객 알선업체의 경우 항공편 등 수도권에서 행사장까지 접근성이 취약하여 육로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해외관광객 유치에 제약이 따랐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관광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치하지 못했고, 연계관광 알선도 미흡하였다. 주민소득과 연계해 관광객을 도심에 유치하려던 속초 생선회 축제와 설악문화제 행사가 기상악화 등으로 차질을 빚어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였다. 더욱이 영랑호 개방과 관내 여행사의 관내관광 패키지상품 개발추진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치에 한계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의 확충으로 실제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향후 조직위원회와 강원도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우선, 청초호 유원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호수변 쪽은 자연생태계 보전차원의 녹지와 시민휴식공간 차원의 자연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제관과 상징탑은 주변 시설을 보강하여 '창조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엑스포 기념관 등 관광관련 전시와 홍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상설이벤트 공연시설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설악산을 찾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정례 답사코스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인 접근성을 해결을 위하여 3~5만톤 규모의 관광유람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속초항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2011년까

지 2만톤급 1선식, 3만톤급 2선식 접안시설을 담고 있는 '속초항 관광선 부두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9년8월 발주하였다.(채용생,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평가" 요약 정리)

Ⅲ. '98세계섬문화축제 평가 및 2001세계섬문화축제 계획

3.1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개요 및 평가2)

3.1.1 축제의 기본 개요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World Festival for Island Culture-Cheju '98)의 주제는 「섬, 늘푸른 미래를 위하여!」이며,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각국의 28개 섬이 참가한 가운데 1998. 7. 18 ~ 8. 13까지 27일간 제주시 오라2동 산39번지 오라관광개발지구내(약 85,000평 내외)에서 개최되었다.

<표 3-1>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섬

지역	참가섬	섬수	비고
태평양1	대만, 해남(중국), 세부(필리핀), 사할린(러시아), 오키나와(일본), 하롱베이(베트남)	6	
태평양2	파푸아뉴기니, 페낭(말레이시아), 타즈메니아(호주), 북마리아나스, 팔라우	5	
태평양3	서사모아, 하와이(미국), 타히티, 칠로에(칠레)	4	
인도양관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모리셔스, 잔지바(탄자니아), 안다만니코바(인도)	5	
지중해·카리브해	도미니카공화국, 자마이카, 시칠리아(이탈리아), 크레타(그리스), 사르데냐(이탈리아)	5	
한국	제주도, 진도, 거제도	3	

2)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평가보고서」, 1998. 8.을 요약 정리.

3.1.2 축제의 운영실적 분석 및 문제점

1) 입장객 현황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장에 입장한 총 입장객은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441,290명이었다. 이중 도민은 242,709명(55.0%)이고, 외국인 18,779명(4.3%)을 포함한 관광객은 198,813명 (45.1%)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기본계획상의 사업목표와 비교해 보면 입장객 유치목표 80만명의 55.2%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도민의 경우는 유치목표 20만명을 21.4%나 초과 달성하였으나, 관광객 유치는 통계 불가능한 IMF경제위기 및 유치활동의 미흡 등으로 목표의 33.1%밖에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중 외국인 관광객도 18,779명이 입장하여 유치목표의 33.5%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표 3-2> 입장객 내역

(단위: 명)

구 분		목 표	실 적
총입장객		800,000	441,290
출신지별	도민	200,000	242,709
	관광객	600,000	198,813
유·무료별	유료 입장객	소계	560,000
		내국인	504,000
		외국인	56,000
	무료 입장객	소계	240,000
		입장시간내	-
		입장시간외	-

※ 외국인 입장객 국적별 현황 추정치(18,799명)

- 일본 11,000, 중국 2,000, 홍콩 2,000, 대만 500, 기타 3,279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무료 혜택부여

2) 재정 운영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표 3-3>과 같이 총 12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세입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65억과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60억(기획사와 협약된 수익사업 30억, 입장권판매사업 30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세출은 기반시설에 34억, 참가섬 운영에 19억, 축제운영비에 70억, 기타 2억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다.

<표 3-3> 세입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목	금액	비고	목	금액	비고
합계	12,500		합계	12,500	
국고	2,800	문화관광부	기반시설	3,400	-
교부세	2,000	행정자치부	참가섬운영	1,900	항공료, 체제비
도비	1,200	-	축제운영비	7,000	기획사협약금
시비	500	-	기타특별행사	200	
자체수익	6,000	입장료, 수익사업			

수지결산 결과 수입예산액 125억 중 국고 및 지방비 등 공공부문에서 60억을 예산액만큼 확보하였으나, 자체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부문이 11억 5,500만원, 입장료 수입수문에서 8억 2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총예산액에 비해 18억1,100만원의 과부족한 105억 4,000만원의 수입을 발생하였다.

지출부문은 기반시설에 예산액 34억 보다 약간 부족한 33억9,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운영연출에 예산액 64억2,600만원 보다 6,000만원을 절감한 63억6,600만원, 참가섬 섭외에 8,100만원을 절감한 18억8,900만원, 기타 특별행사에 7억400만원 등 예산액보다 1억4,900만원이 절감된 123억5,100만원이 투자되었다. 따라서 총수입액 105억4,000만원과 총지출액 123억 5,100만원을 대비한 결과 18억1,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4>,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4> 총괄

(단위: 백만원)

세입	세출액			부족액
	소계	기집행액	미지급액	
10,540	12,351	8,277	4,074	△1,811

<표 3-5> 세입

(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비고
합계		12,500	10,540	△1,960	
국·도·시비		6,500	6,500	0	국비: 4,800, 도비: 1,200 시비: 500
영업 수 익	소계	3,000	1,845	△1,155	
	취장사업	1,630	739	△891	
	영업시설임대	726	455	△271	
	광고 및 현물 협찬	401	96	△305	LED전광판광고게재 수익금
	주차사업	243	60	△183	
	기획사부담분		495	495	결손액 1,650백만원의 30%
입장료수입		3,000	2,188	△812	
이자수입			7	7	

<표 3-6> 세출

(단위: 백만원)

항목별	내역	예산액	결산액	증감
합계		12,500	12,351	△149
기반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등	3,400	3,392	△ 8
운영연출	텐트설치, 조명, 공연 등	6,420	6,366	△ 60
섭외	항공료, 체제비, 일반관리비	1,970	1,889	△ 81
기타	조직운영, 축제장관리 등	704	704	0

3.1.3 축제에의 경제적 효과 분석

<표 3-7> 평균소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주도민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금 액	16,560	220,021	903,625

* 주 : 관광객의 평균소비액은 제주도관광협회가 1998년 7월의 관광수입 산출기준으로 적용하는 1인당 평균관광비용

<표 3-8> 입도관광객 수 (7월 17일 ~ 8월 12일)

(단위: 백만원)

구분	'97년	'98년	증감(비율)	'98년 평균증감율
내국인	480,295	372,285	△108,010(-22.5%)	-30.0%
외국인	14,816	22,098	7,282(49.2%)	7.5%

<표 3-9> 축제에 의한 실인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주도민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실인원	242,790	36,079	6,171

주(*) : 관광객의 실인원 추정은 '97년 7월 17일 ~ 8월 12일간과 '98년 동기간동안의 내·외국인별 내도 관광객 수 차이 중 '98년 1월~7월간에 관광객 감소율을 초과하는 관광객수는 직접적으로 제주섬문화축제로 인해 유발된 관광객으로 추정하였음.

이상의 평균 소비액과 실인원 수를 곱하여 최종수요액을 산출하면 <표3-10>과 같이 약 175억3,300만원(축제장내 도민 소비지출분 포함)정도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로 인해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의 '제주고용동향'에 의하면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있었던 기간에 제주지역 실업자수도 1.2%정도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간접효과를 포함한 경제파급효과는 최근 5년 이내에 작성된 산업연관표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못하였으나,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0> 총소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소비액	도 민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금 액	17,533,062	4,019,112	7,937,380	5,576,270

3.2 '98세계섬문화축제와 2001세계섬문화축제 계획 비교

'98년 세계섬문화축제는 <표 3-11>과 같이 27일간 열렸고, 2001년도는 30일간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예전과 동일하며, 주제는 1998년 「섬, 늘푸른 미래를 위하여!」에서, 2001년에는 「섬에서 세계로!」이다. 참가섬 수는 1998년 28개 섬에서 2001년에는 35개 섬으로 7개섬이 늘어났다.

<표 3-11> '98세계섬문화축제와 2001세계섬문화축제 계획 비교

구 분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기 간	1998. 7. 18 ~ 8. 13	2001. 5. 19 ~ 6. 17
장 소	제주시 오라2동 산 39번지 오라관광개발지구내	
주 제	섬, 늘푸른 미래를 위하여!	섬에서 세계로!
참가섬	25개국 28개섬	26개국 35개섬

<표 3-12>에서와 같이 1998년에 참가하고 2001년에 참가하지 않은 섬은 대만, 세부, 모리셔스, 페낭, 타즈메니아, 필라우, 타히티, 잔지바, 도미니카공화국, 자마이카, 진도, 거제도 등 12개 섬이고, 1998년과 2001년 다 참가한 섬은 사할린, 오키나와, 하롱베이, 서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스, 하와이, 서사모아, 사르데냐, 칠로이,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안다만니코바, 제주도 등 15개 섬이며, 2001년에 처음 참가한 섬은 몽골, 꼬공섬, 대마도, 시즈오끼나와, 시즈오까, 대련, 상해, 하이난, 와카야마, 내주시, 뉴질랜드, 발리, 헤브리디즈, 휴마,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이스터, 마요르카, 브라질, 쿠바, 벤쿠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산타모니카와 산타로사 22개 섬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 일본에서 다섯 개의 섬이 참가예정이고,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섬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1998년에는 참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참가하지 않은 섬이 12개이다.

<표 3-12> 참가섬 비교

지역 구분	1998 참가섬	참가 섬수	지역구분	2001 참가섬	참가 섬수
태평양 1	대만, 해남(중국), 세부(필리핀), 사할린(러시아), 오키나와(일본), 하롱베이(베트남)	6	아시아	몽골, 연변(중국), 꼬공섬(캄보디아), 하롱베이(베트남), 오키나와(일본), 대마도(일본), 시즈오끼나와(일본), 시즈오까(일본), 대련(중국), 상해(중국), 하이난(중국), 사할린(러시아), 와카야마(일본), 내주시(중국)	6개국 13개 섬
태평양 2	파푸아뉴기니, 페낭(말레이시아), 타즈메니아(호주), 북마리아나스, 필라우	5			
태평양 3	서사모아, 하와이(미국), 타히티, 칠로이(칠레)	4			
인도양 관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모리셔스, 잔지바(탄자니아), 안다만니코바(인도)	5	태평양·인도양	북마리아나스, 파푸아뉴기니, 서사모아, 뉴질랜드, 안다만니코바(인도), 스리랑카, 하와이, 발리(인니), 마다가스카르.	9개국 9개 섬
지중해·카리브해	도미니카공화국, 자마이카, 시칠리아(이탈리아), 크레타(그리스), 사르데냐(이탈리아)	5	미주·유럽	헤브리디즈(영국), 휴마(에스),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칠로이(칠레), 이스터(칠레), 사르데냐(이탈리아), 마요르카(스페인), 브라질, 쿠바, 벤쿠버(캐나다), 캘리포니아주정부(산타모니카, 산타로사)	11개국 12개 섬
한국	제주도, 진도, 거제도	3	한국	제주도	1개국 1개 섬
계	25개국	28	계	26개국	35

<표 3-13>과 같이 사업목표에 있어서는 1998년에 비해 2001년 국내관광객 목표는 52만명에서 35만명으로, 외국인관광객은 8만명에서 5만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1일 평균 입장 인원은 1998년 2만 9천명에서 2001년에는 2만명으로 줄었으나, 입장권 판매 수익 목표는 1998년 30억원에서 2001년에는 36억원으로 6억원이 늘어났다. 유료입장객은 1998년 전체 참가자의 70%정도였으나, 2001년에는 80.5%로 유료입장객을 더 많이 유치할 계획이다.

<표 3-13> 사업목표 비교

- 1998년 사업목표

입장객 유치목표 8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민 20만명(전체52만명의 38%) - 국내관광객 52만명(전체 70만명의 74%) - 외국인 관광객 8만명(전체 10명의 80%) * 1일 평균 입장 인원 2만 9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권 판매수익 목표 : 30억원이상 - 유료입장객 유치목표 : 50만명 (80만명의 70%)

- 2001 사업목표

입장객 유치목표 6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민 20만명 - 국내관광객 35만명 - 외국인관광객 5만명 * 1일 평균입장인원 2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권 판매수익 목표 : 36억원이상 - 유료입장객 유치목표 : 48만명(60만명의 80.5%)

1998년의 총입장객 목표는 <표 3-14>와 같이 80만명이었으나 실제 총입장객은 44만 여명에 그쳤고, 도민 입장객의 경우 목표보다 많이 참가했다. 관광객의 경우 60만명이 목표였으나, 실제 입장객은 20여만명에 그쳤다. 유료입장객의 경우 내국인이 5십만 4천명, 외국인이 5만 6천명이었으나, 실인원은 내국인 2십 2만여명, 외국인은 1만 8천여

명으로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치이다. 2001년의 총 입장객은 1998년보다 20만명이 줄어든 60만명이고, 세부적으로 도민의 경우는 1998년과 동일한 20만명, 관광객의 경우 20만명이 줄어든 4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 3-14〉 입장객 내역

구 분		'98목표	'98실적	2001목표	
총입장객		800,000	441,290	600,000	
출산지별	도민	200,000	242,709	200,000	
	관광객	600,000	198,813	400,000	
유·무료별	유료 입장객	소계	560,000	238,522	480,000
		내국인	504,000	219,743	
		외국인	56,000	18,779	
	무료 입장객	소계	240,000	202,768	
		입장시간내	-	154,280	
		입장시간외	-	48,482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의 경우 실인원은 285,040명이고, 그 중 대부분이 도민이었으며, 나머지 소수만이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평균소비액은 22만원으로 지역도민의 평균 소비액의 13배에 달했으며, 외국인의 경우 평균소비액은 90여 만원으로 도민 소비액의 55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표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의 예상 총소비액과 평균소비액은 1998년의 평균소비액을 기초로 추정해 보았을 때, 실제로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예상 인원만큼 왔을 때 그들의 소비액은 상당할 것이며, 즉, 행사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축제로 평가될 것이다.

<표 3-15> 총소비액 비교

구 분		총 계	도 민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1998년	실 인 원	285,040	242,790	36,079	6,171
	총소비액(천원)	17,533,062	4,019,112	7,937,380	5,576,270
	평균소비액(1인당)	61,510	16,560	220,021	903,625
2001년 (예상)	예상인원	600,000	200,000	350,000	50,000
	예상총소비액(천원)	36,906,000	3,312,000	77,007,350	45,181,250
	평균소비액(1인당)	61,510	16,560	220,021	903,625

* 예상총소비액은 1998년 평균 1인당 소비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함.

IV. 제주도 지역 사회단체 면담조사(interview) 결과

4.1 방송매체를 통한 2001세계섬문화축제 홍보

MBC-TV와 라디오에서는 자체 제작한 친절캠페인을 1일 3회 이상 방영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회계몽방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방영할 예정이다. 2001세계섬문화축제에 관련된 광고는 아직까지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2월 중순으로 계획되어진 광고물의 제작이 완료되면, 중앙방송을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된 언론보도 가사를 중심으로 뉴스(News)화하여 방송하고 있다.

KBS-TV에서는 계몽방송 및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KBS라디오에서는 자체 제작한 친절 및 교통관련 캠페인을 매일 방송하고 있다. KBS-TV 역시 MBC와 마찬가지로 세계섬문화축제에 관련된 광고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2 제주도 지역 사회단체와의 면담조사(interview) 결과 분석

면담조사는 2001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8곳 및 직능단체 4곳 총 12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단체는 <표 4-1>과 같으며, 시민단체는 제주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적 시민단체 8곳과 회원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1곳 총 9군데, 직능단체 및 친목단체는 세계섬문화축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내용적으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은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98세계섬문화축제 참여 여부와 봉사 내용'이며, 두 번째 질문은 '2001세계섬문화축제 참여 의향과 가능 활동 영역', 세 번째 질문은 '세계섬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지막으로 '세계섬문화축제 계획 및 결정단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단체 명단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비고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비고
제주경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500명	시민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400명	시민단체
범도민회*	공동대표	350명	시민단체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250명	시민단체
제주YMCA	이사장	2,500명	시민단체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47,511명	시민단체
제주YWCA	회장	1,500명	시민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회장	3,544	직능단체
서귀YWCA	회장	900명	시민단체	제주모범운전자회	회장	585명	직능단체
제주홍사단	대표	1,250명	시민단체	제주도 해병전우회	회장	5,000명	친목단체

주 : * 범도민회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범도민회'의 약칭임.

1)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여여부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도와 시민단체 참여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제주도 시민단체 12곳을 조사한 결과 '98년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참여한 곳은 12곳 중에서 직능단체 1곳(제주모범운전자회), 친목단체 1곳(제주도해병전우회)으로 2개 단체뿐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와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참석한 경우에도 단순한 교통정리 위주로써 시민단체들마다의 특징을 살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여여부

단체명	참여여부	비고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참여하지 않음	
범도민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 요청이 없었음
제주YMCA	참여	고교 YMCA 참석, 전 YMCA 어린이 축제(섬문화 캠프)를 개최
제주YWCA	참여하지 않음	회원 개인적으로 참석.
서귀YWCA	참여하지 않음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음.
제주홍사단	참여하지 않음	
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하지 않음	대형화, 획일화, 지역특색에 맞지 않는 행사. 전시적인 느낌이 강하다.
제주여민회	참여하지 않음	늦은 협조 공문으로 총회를 거치지 못함, 적절한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참여하지 않음	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인적으로 참석.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참여하지 않음	
제주모범운전자회	참여	교통정리, 장내정리
제주도해병전우회	참여	교통정리.

2)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 의향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기회가 된다면 세계섬문화축제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단체로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 등의 형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협조 공문 또는 연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각 시민단체가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또는 참여활동을 전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에는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대량의 쓰레기 발생, 지속적인 세계축제로서 발전 불투명, 미스아일랜드선발대회에 대한 비판 등) 때문에 시민단체로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 의향

단 체 명	참여의향	비 고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참여 의향 없음	다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범도민회	참여 의향 없음	프로그램의 성격상 단체의 활동 취지와 맞지 않음
제주YMCA	참여 희망	학생들 위주(플러브레이드 신고 휴지 줍기)
제주YWCA	참여 희망	이사회 참여 결정 시 참여
서귀YWCA	참여 희망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
제주홍사단	참여 희망	
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 의향 없음	
제주여민회	참여 의향 없음	미스아일랜드선발대회는 사람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음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참여 희망	적절한 역할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참여 희망	향토음식점 개설(제주도와 협의)
제주모범운전자회	참여 희망	교통정리(경찰청의 협조의뢰)
제주도해병전우회	참여 희망	교통정리, 치안관계, 장내정리, 안내

3)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바라는 내용

<표 4-4>에서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바라는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세계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섬문화축제라는 주제를 더욱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제가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인간을 중시여기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관광객에게 제주를 각인시킬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가 되어야 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4-4>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바라는 내용

단 체 명	내 용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행사가 일회성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 관광객에게 각인될 수 있는 실속 있는 축제로의 전환 필요.
범도민회	섬 민간단체와의 교류 모색.
제주YMCA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제주YWCA	시내와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 설문조사를 통한 발전계획 모색.
서귀YWCA	차량진입이 어렵고 혼잡하고 무질서하여 공연관람의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홍사단	세계섬문화축제 취지를 살리는 노력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	쓰레기 발생에 대한 대비, 축제장 행사 후 관리 필요.
제주여민회	대규모의 축제 내용이 비슷하여 특수화 노력 필요, 보고 즐기는 것에 치중되어 있음, 제주의 고유 특성 강조 필요.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 여성 외국어 자원봉사단체가 잘 활용되지 못함.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품평회/평가회 개최, 제주향토음식 개발/소개.
제주모범운전자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 팸플렛을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전시/홍보 가능.
제주도해병전우회	기동대월례회의/임원회의(월/주)

4) 정책결정 과정 참여 여부 및 참여 의향

지금까지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여부 및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4-5>와 같이 12개 시민단체가 모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고, 정책결정과정 참여협조 공문은 '제주도해병전우회'에서만 접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에 10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대상 단체 12곳 중에서 1곳만이 협조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제주도 시민단체 대부분이 계획 수립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표 4-5> 정책결정 과정 참여여부 및 참여의향

단체명	참여여부	비고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도청/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하지 않음.
범도민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green peace와의 전화 통화.
제주YMCA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제주YWCA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서귀YWCA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홍보공문 접수.
제주홍사단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제주여민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서울설명회 참석.
제주모범운전자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안됨. 경찰청 협조
제주도해병전우회	참여하지 않음	협조공문접수.

V.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세계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1. 주인(Host/Hostess)으로서의 지역주민 역할

축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의 참여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설정 및 축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아이디어(idea)를 수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참여인지도가 높을수록 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Murphy(1988)가 제시한 워크샵 접근법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로비안 지역(British Columbian Community)인 빅토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된 사례이다. 빅토리아 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의 걸림들이었던 지역의 관광단체와 기관들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노력들을 '주말 워커샵'을 통해 이 지역의 6개 관광관련단체,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사진위원회(blueprint committee)」를 탄생시키고 관광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지역문화가 다른 제주도에 접목시키기에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들을 단순히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두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성격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민들의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자신(自身)에 대한 믿음(자신감; 自信感)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범(範)도민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문화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 대한 자아(自我)의 재발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가치 있고, 내재(內在)되어 있는 고유한 제주문화를 발굴하고, 우수한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킬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축제행사 홍보가 잘 될수록 관광객에 대한 친절 개선의식은 적극적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에 대한 환대성(hospitality ; service mind) 고취와 세련된 표현력은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축제도우미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전문화(適材適所)해야 한다. 지역 친목단체 중의 하나인 '제주도해병전우회'에서는 축제기간 중 행사장내 치안 유지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직능단체인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정리와 주차장관리를 하며, 그리고 '간호사회'에서는 미아와 환자보호 업무를 수행한다면 참가하는 구성원도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2. 고객(Guest)으로서의 지역주민 역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가치성'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문화축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행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출이 축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 사회단체와 예·체능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예술단의 공연 및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문화마당(미술대회, 합창대회, 웅변대회, 축제참가감상문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 공이며, 이들이 동반하는 보호자의 축제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 분위기 고조를 위한 사전 행사(pre-event)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행사의 의미를 일깨우고, 홍보함으로써 '다 함께 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월에 벚꽃이 만개(滿開)하는 시기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은 시간에 개최하는 햇볕행진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축제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 제주도를 연고로 하는 출향(出鄕)인사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이들을 축제홍보 요원화(要員化)함과 아울러 축제기간에 이들을 초청하는 '고향방문의 날 행사(Home Coming Days)'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축제기간에 지拂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우대하는 방안(연말정산에 일정한 부분을 세금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록 중앙정부의 세수(稅收)는 줄어들겠지만 위기에 처한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이 연구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섬문화축제를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Mega Event)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지방에서 열리는 관광축제의 성공여부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긍정적인 평가는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평가단계 까지 어떻게 지역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국내의 세계문화축제의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벤치마킹(bench marking)과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세계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라는 차원에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비효율적인 지역의 관광단체와 기관들의 중복되고 단편적인 노력들을 '주말 워커샵'을 통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관련단체, 기관의 대표, 시민대표, 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관광발전위원회(Jeju Tourism Development blueprint committee)」의 구성을 제의한다. 그리고 세계섬문화축제의 열기가 발산되는 시점에 제주도민 주도로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범도민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타향에서 항상 '내 고향 제주'를 그리워하는 출향인사(出郷人事)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축제에 있어서 마케팅과 홍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 일수록 좋다. 지금까지 미흡하였던 홍보를 위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세계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 홍보방안을 제시한다면,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상시 개설하고, 관련 자료를 새롭게 갱신(up-date)하여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세계섬문화의 캐릭터를 화면보호기(screen saver)와 클립아트로 제공', '프로그램을 동영상과 정화상으로 제공', '제주에서 자생하는 왕벚꽃나무와 문주란 등을 재배하는 사이버농원의 개설'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사이버시대(cyber world)에

맞추어 개발하여야 한다.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요원,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전문화(適材適所)해야 하며, 관광객에게 대한 환대성(hospitality; service mind) 고취와 세련된 표현력은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요원 및 축제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역주민의 친절(service) 교육을 전담할 「가칭 제주서비스아카데미(JSA : Jeju Service Academy)」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축제도우미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전문화(適材適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내의 직능단체와 유관단체가 참가하는 '범도민축제지원단'을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 지원단에서는 자원봉사원들의 선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함으로써 세계섬문화축제의 위상은 명실공히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은·이훈(1999), "문화관광축제의 행사프로그램 내용분석", 한국관광개발학회.
- 김홍철(1999), "익산 들문화축제 참가자의 심리요인(AIOS)-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제1권.
- 동아출판사(1995), 「세계의 대축제」, 동아출판사.
- 박근수(2000), "지역주민협력과 이벤트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 손대현(1997), "강원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관광산업의 발전 방안", 호텔관광경영연구, 제12집.
- 심상도(1998), "축제와 지역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2권 제2호.
- 이종화(1999),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와 외래관광객 유치촉진 방안", 제주관광연구, 제2집.
- 이준혁(2001), "축제방문객의 이미지분석-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동계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 이충기·김동기(2001), "異文化간 축제 참여동기 분석 :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동계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 이태희·이충기(2000), "전통축제 방문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서 관여수준", 관광학연구, 제24권 제1호.
-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관광산업연구소·동아시아연구소·섬연구소·지역사회발전연구소(2000), 「섬과 대륙의 공영 : 그 하나됨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관광산업연구소·동아시아연구소·섬연구소·지역사회발전연구소.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KBS제주방송총국(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KBS제주방송총국.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기획협의회(1997), 「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21세기 제주, 변해야 산다." - 도민 관광의식 세미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기획협의회.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0), 「제주도관광진흥기본계획-기본과 기초의 확립-」,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지방자치연구회(1992), 「제주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도지방자치연구회.

제주발전연구원(2000),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1998),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평가보고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_____ (2001),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기본계획」,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_____ (2001),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종합실행계획」,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1995), 「국내 문화행사 관광상품화 방안」, 한국관광공사.

Getz, Donald(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Y: Van Nostrand Reinhold.

Cronpton, John L. & Stacey L. McKay(1997).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425-439.

Haywood(1988). Responsible and responsive planning in the community, *Tourism Management*, Vol. 9.

Jamal, T. B. & Getz, D.(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Murphy, T. B.(1983). Perception and attitudes of decision making groups in tourism cent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1.

Uysal, Muzaffer, Lawrence Gahan, & Bonnie Martin(1993).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a case study.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1): 5-10.